

Magazine

CGN

Autumn 2014_Vol.6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출범

러브 인도네시아
love indonesia

〈커버스토리〉 가수 소향

CGN Interview

요리연구가 고(故) 최신애 권사

남편 심광명 씨

CGN Family 〈영화배우 장광〉

CGN Choice

말씀강해 〈데이비드 플렛, 톨리안 차비진, 카일 아이들먼〉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el.02-796-9800 fax.02-749-6638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들고 있던 모자를 선물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다.

한낮의 뜨겁던 태양이 저물어가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시간.

엄마는 아이의 뒷머리를 사랑으로 쓰다듬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나 걸어갈지 알 수 없었지만

보라색 모자를 받아 쓴 여인은 행복한 모습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엄마와 아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 또한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든다.

— 에티오피아

신미식 |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후원, 땅 끝 행복 방정식

CGNTV를 떠올리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소통자,

열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위로자,

남녀노소,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어 시청자의 가슴을 울려주는 공감 능력,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절박성을 전파하는 예언자적 목소리,

공동체의 선을 위해 사명감 갖고 기꺼이 다가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 모음.

CGNTV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서 기독교 방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왔습니다. 20세기 최고 기독교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존 스토틀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유명 해외 강사들의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허입해 한국교회에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주었습니다. ‘선교사자녀 story MK날다’ ‘충성 은혜로軍’ 등 한국교회가 돌봐야만 할 영역과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은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자 행동이었습니다.

내년 3월,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에 제작센터 등 한국 기독교의 최대 해외 방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이집트, 인도, 러시아, 유럽 등을 향한 미디어 선교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방송을 넘어 세계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0월 5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일에 서빙고 캠퍼스를 비롯해 국내 10개 캠퍼스교회에서 정기후원행사를 갖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온누리교회는 창립일과 CGNTV 후원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CGNTV 140여명의 직원들은 온누리 캠퍼스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후원행사를 섬기게 됩니다. 이에 앞서 모든 직원들이 먼저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후원자가 돼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후원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랑은 땅 끝의 행복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CGNTV 형제자매들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더 많이 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헌신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포토에세이 | 사진작가 신미식
프롤로그 | 정상건 CGNTV 운영위원장

CGN STORY

06

CGN 스토리 |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10

커버스토리 | 가수 소향
소향이 노래한 테마 <러브 인도네시아>

PEOPLE

12

CGN 패밀리 | 영화배우 장광
변함없이 순전하게

14

선교지의 아침 | 필리핀 김남섭 선교사
CGN과 함께 쓰는 필리핀 선교 스토리

16

CGN 인터뷰 | 요리연구가 고(故) 최신애 권사를 추억하며
마르다의 손, 마리아의 마음

PROGRAM

19

CGN 초이스 | CGNTV 외국어 말씀강해 프로그램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방송으로

21

CGN 제작후기 |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당신이 제2의 청춘선교사입니다

22

현장스케치 | CGNTV 2014 여름 예배, 집회 현장
예배를 누리세요

C O N T E N T S

Autumn 2014_Vol.6



표지 이야기
가수 소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꿈을 노래하는 현장에서

MISSION

24

CGN 스페셜 | 리키마루 츠구오(力丸嗣夫) 목사
일본을 향한 CGNTV의 가능성

NEWS

26

CGN 뉴스 | 해외
미주, 일본, 중문, 태국, 아랍

28

CGN 뉴스 | 국내

30

요일별 편성표

SUPPORT

32

후원자 인터뷰
이재운/정주호/김덕년, 유영신 부부

34

후원안내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4년 9월 30일(통권 제6호) |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 발행인 이재훈 | 대표 유재건 |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에 | 글 조인에 | 사진 정현우, 여준원, 스파지오 |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출범

“더 멀리, 그리고 가까이”

CGNTV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여섯 번째 해외 스테이션을 설립했다. 오래 전부터 숙원하며 길을 모색해 왔던 땅으로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로써 CGNTV는 설립 정신을 이뤄갈 또 한 곳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제 막 물꼬를 튼 단계지만 지난 9월 17, 18일 진행된 지사 출범 행사에서는 참석자들마다 함께 하는 시간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멀기만 했던 서로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남아시아 중 한류가 가장 늦게 전파된 만큼 한국과는 문화, 종교 등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 및 한인연합공동체에서는 CGNTV의 출발을 보며 벌써 방송사 설립 그 이상의 비전을 품고 있다. ‘러브 인도네시아’. 많은 이들이 그리는 꿈이 시작됐다.



1
6

1. 인도네시아로

9월 16일 새벽 5시, 어둠을 뚫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행사를 앞두고 곧 인도네시아로 떠날 CGNTV 직원들이었다. 모두 전날 늦게까지 잠을 꾸리고 장비를 점검한 터라 다소 피곤한 상태였지만, 얼굴은 모두 기대감과 흥분이 엮여 있었다. 그들은 7시간 하늘 길을 날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 동남아 특유의 향과 후텁지근한 날씨가 가장 먼저 일행을 반겼다.

2.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 순위 세계 4위로 2억5300만여 명에 달한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9배이고, 핵심 자원인 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바족, 수다족 등 330여 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국민의 87%가 무슬림이다. 여러모로 한국과 달라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한류가 가장 늦게 전파된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돼 있고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6만 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전체 인구의 7% 정도다.



1.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 현장.
2. 행사중 메시지를 전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3. 양국의 행사진행자 정태우, 테레사 히유.
4. 인도네시아 현지 봉사자.
5. CGNTV운영위원 인도비전 방문.



3. 화합의 첫걸음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위성방송 인도비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9월 부터 라이프채널을 통해 현지어 자막을 넣은 방송을 시작했다. 17, 18일 열린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는 그 신호탄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적 인적 교류를 위한 출발을 알린 자리였다.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를 축하했고 양국 화합을 위한 우의를 다졌다. 17 일에는 인도네시아 한인연합집회를, 18일에는 인도네시아 리더 300명을 초청해 리더십 포럼 을 가졌다. 그 뒤 메인행사인 <러브 인도네시아>의 포문을 열었다.

4. 러브 인도네시아

<러브 인도네시아>는 CGNTV 임직원 39명, 인도네시아 연합 교회, 현지 크리스천 등 총 1400 여 명이 한 데 어우러진 기쁨의 한 마당이었다. 가수 소향을 비롯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소프라노 김영미,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등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인도네시아 따나메다 합창단 과 가수 시아기안 등이 어우러져 혼신을 다한 무대를 꾸몄다. 행사가 진행됐던 '더 플라자 세뻥기 풀'은 매 순서마다 함성과 박수갈채로 들쭉였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양국의 화 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고,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미리 접어둔 종이비행기 1400 개를 날리며 서로의 가슴에 새 희망을 불어넣었다.



<러브 인도네시아> 행사 현장.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출범을 축하하며 참석한 전원이 1400여 개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인도네시아 가수 뽕에란 시아기안



리더십 포럼의 양국 진행자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팀



소프라노 김영미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5.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 잔치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행사에 올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 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더욱 친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하 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관중들의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가득 했다. CGNTV는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은 CGNTV를 격려했다.

소향이 노래한 테마 러브 인도네시아 *love indonesia*

가수 소향이 CGNTV 지사 설립을 축하하며 <러브 인도네시아> 무대에 섰다. 인도네시아를 품고 출발하는 CGNTV와 마음을 같이 한 듯, 그녀의 열의에 찬 목소리는 자카르타의 하늘을 울리고, 인도네시아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가수다> 이후 TV 무대에선 그녀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화면 뒤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여일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무대 뿐 아니라 봉사활동, 소설 집필까지, 그녀의 행보는 장르를 망라해 다양했다. 하지만 그 길의 좌표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밟은 그녀를 자카르타 '더 플라자 세멩기 몰'에서 만났다.

지난 2012년은 숨어 있던 가창력의 가수 소향이 대중들에게 그 진가를 알린 해였다. 가수 소향으로 대중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무대만으로 그녀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좌중을 압도했다. 10여 년간 CCM을 고집해왔던 그녀가 더 많은 관객들 앞으로 다가선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새로운 출발선을 막 넘어선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처음 <나는 가수다> 섭외를 받고,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저와 달랐지요. 그 일은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제 기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인데 말이죠. 그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래야 복음도 더욱 힘을 발휘할 테니까요.”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그녀의 기도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녀는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좀 더 영향력을 끼치며 폭넓은 무대와

현장에서 대중들과 소통했다. 최근 '밥퍼'로 잘 알려진 기독교 봉사단체 다일공동체의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여러 의미 있는 콘서트 자리에서 꾸준히 무대를 장식했다.

지난 7월에는 작은 교회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로하는 '크레이지 원데이 콘서트2014'에, 8월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2014 DMZ 평화 콘서트' 무대에 섰고, 지난 5월에는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함께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으론 가요계의 디바로 좀 더 발돋움 할 수 있을 법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다소 무대만 넓어졌을 뿐 지난 10년과 같이 안단테의 템포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의 영향도 컸다. 그 중 한 사람으로 그녀는 자신의 롤모델이기도 하다며 텔런트 김원희를 꼽았다.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기금 마련 행사는 김원희 씨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녀는 행사 무대에만 선 것이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들이 직접 수술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녀를 보면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또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가 꿈을 멈추지 않는 이유... 부르심으로 떴 걸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

이밖에도 그녀는 꿈쟁이 소향의 면모를 보여주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처음 연기에 도전했고,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쓴 판타지 소설 <크리스탈 케슬>을 출간하기도 했다. 최근엔 <크리스탈 케슬>을 영화화하는 꿈에 부풀어 있다고, 소향은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어 성경공부와 기도도 이전보다 열심히 한다”며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꿈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부르심으로 떴 걸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란 그녀의 확신 때문이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지요?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저희가 그 뜻을 함께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요.”

영혼과 메시지를 실은 목소리로 인도네시아의 9월을 수놓은 소향.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저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게 될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천(天)의 목소리, 배우 장광 변함없이 순전하게

영화 <도가니>에서 쌍둥이 교장 역을 실감나게 연기했던 배우 장광이 애니메이션 <슈렉>의 '슈렉', 초창기 '미키마우스'였다 는 사실을 아시는지. 또한 그가 CGNTV의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에서 60세가 넘는 지금까지 10년 을 넘게 꼬마 인형들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 은. "목소리가 바뀌면 꼬마 시청자들이 배신감 느끼다 며 제작진들이 지금까지 붙잡네요"라며 너털웃음을 웃 는 그는 CGNTV의 전신인 '온누리TV' 시절부터 15년 CGNTV와 함께 한 CGNTV의 가족이다. 그를 만나 그의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배우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다. 다소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장광은 60세를 기점으로 이전과 다른 길을 걷 고 있다. 무려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도가니> 로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더 욱 신앙을 공고히 했다.

그 무렵 그는 한창 새벽 재단을 쌓고 있었다. "앞으 로 내 생애에 최고의 10년, 20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를 하십시오"라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 깊게 와 닿 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던 중 배우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후 그는 <도가니>로 화제가 됐던 악역을 맡았음에 도 불구하고 의외로 TV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 오기 시작했다. 첫 프로그램에서 편안한 입담이 호응을 얻으면서 출연이 이어졌다. 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게 됐고, 이를 통해 그는 데뷔작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 <광해>의 조내관 역으로 천만 관객들의 눈에 들 게 됐다.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가족들도 함께 느끼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 했다.



크리스천으로...

그는 최근 영화 <허삼관 매월기>의 촬영을 마쳤다. <허삼관 매 월기>는 영화배우 하정우가 감독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는 영화 다. 한국 영화들이 크랭크인에 앞서 흔히 고사를 지내는 것이 관 레인데, 이 영화는 이례적으로 예배를 드린 후 촬영을 개시했다 고 한다. 크리스천인 장광에게는 이채롭고 반가운 경험이었다.

그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협심증이 있으 셨던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면서부터다. 그는 성가대가 부르는 4부 합창에 매료됐고, 이후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연극을 지도하기 위해 가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당시 믿음도 없었고, 평소 생활도 크리스천답지 못했는데 주일이면 교회에는 꼭 갔죠(웃음).", "이후에도 불길 같은 신앙의 체험은 없었지만 어 느 순간 성경 말씀이 그저 쪽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는 생활 중 특유의 편안한 인상과 목소리로 지인들과 복음을 나누는데도 스스럼없어 보였다. "촬영현장에서선 시간이 나면 후배 들이나 스태프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 다. 그러다 다른 현장에서 또 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는 후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면, 더없이 기쁩니다."

요즘 그의 기도제목 중 눈에 띄게 "상을 한 번 받으면 좋겠다"라 는 내용이 있다. "상을 받으면 배역이 달라지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믿을 수 있는 연기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전도에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현재 온누리교 회 장로로, 교회의 영등포 구로공동체 대표 장로도 맡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TN 드라마 <꽃밭에 수사대> (위)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우측)



CGNTV 녹음실에서.

CGN 패밀리로...

장광은 1999년, CGNTV가 인터넷 방송이었던 시절부터 CGNTV 와 함께 해왔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딱 맞는 스튜디오에서 대어 섯 명이 나누어 들어가면서 녹음하고, 함께 자장면도 시켜먹으면 서 동고동락했다.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좋아요> 인 형극의 꼬마 인형 하나가 그의 목소리다. 또한 그는 직접 필리핀 으로 아웃리치를 떠나 CGNTV 안테나를 설치해 주고, 목전에서 선교사들의 애환을 들으며 지난 15년간 CGNTV의 곁에 있었다.

최근에는 CGNTV가 올해 들어 새롭게 선보인 시니어 선교 프 로그램 <은빛날개> 내레이션에 한창이다. 동년배 시니어들의 도전에 함께 달리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는 "<은빛날개>를 하 면서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도 재밌고 보람도 있다"고 했다. 더 불어 "공중파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년층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는 작품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연기는 하나님 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장광은 그간 베테랑 성우로 탄탄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 귀에 친숙한 수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물론 영화 <레옹>의 게리 올드만,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 <스타워즈>의 리 엄니스 등의 목소리가 모두 그의 연금술이었다. 작품마다 다른 옷을 입는 그의 목소리는 진정 '천의 목소리'라는 수식어가 아깝 지 않았다.

60세가 되어 맞았다는 그의 인생 터닝포인트. 37년 그가 '천의 목소리'로 달려온 길이 더욱 '천(天)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변 화된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다.

CGN과 함께 쓰는 필리핀 선교 스토리

“이곳에서 CGNTV의 역할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며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CGNTV는 그 순간 우리를 본질로 돌이켜 줍니다.”

김남섭 선교사는 CGNTV 전도사다. 2008년 필리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직접 CGNTV를 설치해 시청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 됐다.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사역이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그는 그 감동을 주변에 소개하고 나누기 시작했다. 기꺼이 자비량으로 설치해 주기도 했다. ‘필리핀의 예배 회복과 교회 건축’을 꿈꾸며 필리핀 땅을 밟았던 그는 이제 이 사역을 통해 또 하나의 선교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

1



1. 김남섭 선교사 가족.
아내 권미경 선교사, 아들 김운유 군.
2. 현지 선교사와 함께. 안테나 설치 후.
3. 2014년 CGNTV 여름 이웃리치 팀과 함께.
4.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김 선교사.



선교사들의 친구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CGNTV를 권했지만 필요없다며 안본다고 했죠. 그래도 달아주었는데, 이후 다시 열정을 회복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김 선교사가 가장 기뻐던 순간은 동료 선교사들이 CGNTV를 통해 회복될 때였다. 그의 주요 사역 중 필리핀 선교사들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고 연결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만큼 그는 필리핀 땅을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는 자신이 그랬듯 가장 먼저 CGNTV를 소개했다. 그에게 CGNTV는 나약한 영혼을 위한 특효약이자 비장의 카드였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주변 사모들, 친구가 없어 외로워했던 이들이 회복됐고, 새 동력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비방하던 이들이 이후 그들을 돕는 자들로 바뀌었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 설교를 들으며 반가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익숙한 언어가 주는 감동

“필리핀 목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CGNTV에서 영어설교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모두 얼마나 집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식사 준비를 다 마친 후에도 설교가 끝나고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



사 중에도 대화 주제는 온통 설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 선교사는 함께 했던 그들에게 직접 CGNTV를 설치했고, 현재 그들은 시간에 맞춰 방송을 챙겨보며 영어 편성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영어설교나 세미나는 현지인들에게도 반가운 만남이었다. 선교사 가정에서 함께 하거나 센터에서 생활하는 필리핀인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그들 또한 연신 은혜를 고백하고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전도자, 사역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김 선교사는 요즘 CGNTV가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로 번역돼 방송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더 깊은 예배로, 더 감사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필리핀 땅의 예배 회복과 교회 건축’을 향한 그의 소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CGNTV는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 순간
우리를 본질로
돌이켜 줍니다.”



마르다의 손, 마리아의 마음

고(故) 최신애 권사의 남편 심광명 씨와 나는
짧지만 긴 이야기

“당신께서 이 부엌에 함께 하시어 제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들이 사랑과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근심과 불평을 없애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심어주십시오. 사랑이신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 최신애 권사의 ‘부엌기도’ 중에서

요리연구가 고(故) 최신애 권사가 지난 7월 20일 하늘시민이 됐다. 올해 초만 해도 CGNTV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에 그녀가 있었기에, 그녀의 부고는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다소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 뜰 단풍나무 아래 잠들어있다. 그곳은 지난 해 9월 그녀의 남편 심광명 씨가 아내의 선한 바람들을 듣고 지어준 곳이다. 얼마 전까지 <행복한 식탁>의 세트였고, 그녀의 강의도 진행됐던 곳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아쉽게도 10개월 정도 밖에 되지 못했다. 심 씨는 “아직은 이곳에 좀 더 있으라고 수목장을 치렀다”

고 했다. 이곳을 지으며 아내와 나눈 약속이기도 했다며.

매거진 CGN은 투병 중에도 자신의 길을 여일하게 걸어갔던 그녀를 추억하며 그곳을 찾아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였던 그녀의 남편 심광명 씨를 만났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그녀가 스태프들을 위해 간식을 놓아두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촬영에 열의를 다했던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젠 그녀의 남편이 대신 손님들을 맞는다. 스튜디오 2층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부지런히 손님들을 챙겨주었고, 그녀의 몫을 대신하듯 마음을 다해 물음에 답해주었다.



1. 고(故) 최신애 권사의 가족들.
2. 남편 심광명 씨.
3. 생전 최 권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 심광명 씨.
4. CGNTV <행복한 식탁>을 진행하는 최 권사의 모습.

#1. 집밥

최 권사는 지난 해 <행복한 식탁 시즌2>를 진행하며 즐겁게 소개하고 있는 메뉴들을 선보였다. ‘가족과 만드는 요리’, ‘식탁 위의 밥도둑’, ‘손님 초대 요리’, ‘건강을 위한 컬러푸드’ 등 다양했다. 늘 먹는 이들의 행복에 초점이 있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에 테마 같기도 했다.

그녀의 손맛의 팔 할은 가족들의 힘이였다. 그녀의 가족들은 늘 그녀의 요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 심 씨는 아내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쉽게 꼽지도 못했다.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는 것. “진짜 다 맛있었어요. 그럼 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 때문인지 아이들도 늘 엄마 요리 최고라며 추켜세웠어요. 그러면 아내도 더 힘이 나 보였지요.”

그녀는 원래 패션학도였다. 하지만 전공 공부 중에도 주변에서는 이미 타고난 손맛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전공을 선회한 그녀는 인간문화재이자 궁중음식 명예보유자인 황혜성 교수에게 궁중음식을 배운 후, 한국의 맛 연구소 강인희 교수에게 반가음식을 사사받았다.

현재 심 씨는 ‘장미 벽지’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장남 심준희 씨가 사장으로 경영 중심에 있고, 차남 심건희 씨는 독립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그는 일 년에 반 이상을 외국에 있을 만큼 사업상 출장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늘 집밥이 그리웠다. 그녀의 식탁은 그에게 꼭 필요했던 충전소였다.



#2. 초대

하지만 그녀의 집밥에 위로를 받은 것은 비단 그의 가족만이 아니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자신의 산문에서 “나는 아마도 밥을 여린 마음, 다친 마음 등, 마음에는 무조건 잘 듣는 만병통치약쯤으로 아나보다”라며 밥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적어 놓은 바 있다. 최 권사의 집밥도 아마 위 글귀처럼 맛 이상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한 지인에게 “음식을 대접받은 후 아내가 더 이상 우울 증 약을 먹지 않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또 남편 심 씨의 목회자 친구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교역자들이랑 밥 좀 먹으로 가도 되겠느냐?”라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교를 설립한 윤승재 선교사도 그녀가 자주 초대했던 이들 중 한 명이다. 윤 선교사가 한창 사역에 힘들 때 그녀는 그는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자주 밥을 해 먹였다. 온누리 교회 고(故) 하용조 목사도 한창 투병 중일 때 자주 그녀의 초대를 받았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하 목사의 사모는 아직도 그녀의 음식이 그리워 최근까지 연락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번은 선교회에서 초청한 태국 산족 아이들 22명이 다녀간 적도 있다. 그들은 아파트 거실에 밥상을 쭉 펴고 오순도순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이밖에도 베트남, 아프리카, 일본 등 지구촌 곳곳 친구들이 그녀를 뵈러 왔고 돌아갔다.



CGNTV 직원들이 보낸 사랑의 편지.

늘 먹는 이들의 행복에 초점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 테마 같기도 했다.

#3. CGNTV

그녀의 식탁은 그녀의 선교 방식 중 하나였다. 그녀가 생전에 CGNTV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유도 CGNTV가 선교사를 위한 방송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투병 중에도 CGNTV 방송 진행은 놓지 않았고, CGNTV의 오랜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봤던 차남 심건희 씨는 그녀가 소원한 후, 그녀의 유지를 잇고자 CGNTV 정기 후원을 약속했다.

“제가 해외 출장이 잦아 태국, 미국 어느 나라든 가면 꼭 출석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였죠. 아내와 동행한 적도 많았는데, 그 교회들을 가면 CGNTV를 본 현지 교인들이 만나 할 것 없이 최 권사를 먼저 알아봤어요. 한 태국 선교사는 치앙마이 본부에 늘 CGNTV를 틀어놓았는데 그때 방송을 본 산골짜기 사람들도 아내를 알아봤지요. 해외에서의 CGNTV 영향력을 몸소 체감했기 때문에 아내는 CGNTV 봉사에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4. 전도

그녀의 선교는 식탁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을 가진 전도자였다. 심 씨가 인터뷰 전 준비한 듯 꺼내 보여 주었던 것도 그녀에게 전도를 받았던 이들이 보내 온 편지와 캄보디아에서 음악학교를 세운 선교사가 보내 온 캄보디아 최초의

음악책이었다.

“최 권사는 전도도 많이 했고, 누군가 전도를 시작하면 꼭 이겼어요. 자기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힘이 있었죠. 믿음이 저보다 한 수 위였어요. 성경도 읽으면 꼭 외웠어요.

아마 성경의 3분의 1은 외웠을 거예요. 신약은 절반 이상 외웠죠. 이는 성경 구절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간증도 많이 했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3년 간 노방 전도도 했다. 전도한 이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다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도 했다.

#5. 믿음과 사랑의 이름

최 권사의 이름자인 ‘신애’는 그녀의 모친이 새벽기도를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믿을 신, 사랑 애’를 써 지어준 이름이다. 사실 그녀의 모친은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교회를 밟았다지만, 어찌됐건 그 지극 정성 기도로 그녀가 태어났다. 기도로 낳아 ‘믿음과 사랑’의 이름으로 한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딸.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나눈 식탁의 온기, 선교의 열정, 삶의 가르침은 또 다른 열매로 지구촌 곳곳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

단풍나무 그들 아래, ‘사랑하는 아내, 우리 어머니’라고 적힌 그녀의 묘비 위로 햇살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최 권사가 잠들어 있는 그녀의 들.

가슴 뛰는 메시지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방송으로

CGNTV는 복음의 핵심을 도전적으로 전하는 세 명의 차세대 목회자들의 말씀강해 시리즈들을 방송한다. 데이비드 플랫, 툴리안 차비진, 카일 아이들먼. 세 사람은 모두 국내에서 설교 보다 저서로 먼저 알려져 있다.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젊은 영적리더들의 가슴 뛰는 메시지들. 책에서 만났던 감동이 저자의 입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된다.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 방송시간 |
수요일 오후 11시 50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 제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회개해야 한다.”(CGNTV 데이비드 플랫 인터뷰 중에서)

데이비드 플랫은 저서 <래디컬>을 통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로 많은 독자들의 심령에 경종을 울렸다. <래디컬>은 제목처럼 급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담고 있었지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진리에 갈급한 현대 크리스천들의 심경을 반증한 것.

CGNTV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은 책을 통해 챗터별로 그의 메시지를 만났듯, 육성으로 전하는 그의 메시지를 매 회 주제에 따라 생생하게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은 예배당을 교회로 보지 않으셨다. 제자 낳는 제자를 교회로 보셨다.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버리라”는 그의 메시지들은 다시 한 번 신앙과 인생에 좌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플랫 목사는 현재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위치한 브룩힐즈교회를 담임하며 ‘래디컬’로 불리는 제자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최근 4만 교회와 1600만 명 회원을 둔 미국 남침례회 소속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신임 회장으로 선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툴리안 차비진의 믿음의 영웅, 예수



| 방송시간 |
화요일 오후 4시 40분

<JESUS ALL> <은혜의 추격전>에 이어 신간 <더 크리스천>을 펴낸 툴리안 차비진 목사의 말씀강해 시리즈.

그는 특유의 진중하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친구약 말씀 해석을 통해 예수님이 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인지 전하며 그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역설한다.

그의 주요 저서들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들을 그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그의 최근 저서 <더 크리스천>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 주 코럴릿지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다.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외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각종 콘퍼런스에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갈된 세상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 직접 교회 네트워크인 ‘리버레이트(Liberate)’를 설립했다.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



| 방송시간 |
 금요일 오후 11시 50분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전하는 말씀강해 시리즈.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었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참 제자의 길을 찾아가는 메시지들을 전한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설교는 반가운 만남이 될 것이다. 아이들먼 목사는 현재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교회의 교육 목사로 젊은 목회자답게 유쾌하고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어조로 타협 없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 위 말씀강해들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1강부터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2의 청춘선교사입니다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가 오는 10월 지난 8개월간의 여정을 일단락 한다. 잠재된 시니어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시니어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던 <은빛날개>.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했던 지난 8개월은 실제 어땠을까? 제작진 중 한 사람이었던 경소영 PD에게 궁금했던 화면 뒤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 선교, 농업 선교, 국내의 아웃리치 현장 등을 직접 보시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길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국내외 아웃리치는 어땠나요.

국내에선 출연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따스함을 갖고 계셔서 다문화 분들도 잘 따르셨지요. 현지 분들도 청년 아웃리치와는 또 다른 여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선 실제 사역중인 여러 시니어 선교사들을 만나고 많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시니어 선교에 관한 별도의 문의가 왔을 때였습니다. 청춘선교단을 선발하면서 부득불 떨어지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시니어선교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했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은빛날개>는 막을 내리지만, 시니어선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니어 분들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시니어 자원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출연진 평균나이 65세에 실제 교육 과정까지 담아야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땠나요.

저희들끼리는 ‘기독교계의 무한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출연자들도 처음 하는 도전이었고, 제작진도 강의와 ENG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고요. ‘무한도전’처럼 매 편 다른 기획도 필요했고, 일곱 분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출연자들이 각자 어느 정도 신앙의 색깔이 굳어진 분들이시라 함께 어우러져가는 과정도 도전 아닌 도전이었습니다.

<은빛날개> 각 회가 실제 시니어선교 교육과정과 같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전문 협력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제로 짠 커리큘럼입니다. 하지만 <은빛날개>는 세미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보다 실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교육과정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요. 15분 안팎으로 편집됐던 강의들은 10월 중순 실제 강의만 편집돼 다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마친 청춘선교단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을 꼽는다면.

이런 훈련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교회 중심이셨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 잘 모르셨던 거죠. 비즈니스 선교, MK/MP(선교사 자녀/부모)선교, 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올팟 그레이)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품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

☺ 케이블TV

- ▶ CJ헬로비전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SK Broadband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NIB 남인원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 IPTV

- ▶ allnet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3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예배를 누리세요

CGNTV 2014 여름 예배, 집회 현장

‘은혜의 열기 속엔 언제나 우리가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철마다 때마다 찾아보는 CGNTV 예배, 집회 프로그램들. 그 뒤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숨은 일꾼들이 있다. 중계방송 때마다 편성되는 CGNTV 드림팀. 오랜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들은 폭염이 쏟아졌던 지난 여름에도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러브 인도네시아> 현장까지.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던 그들의 동선을 들여다봤다.

카메라 들고 예배자로

CGNTV 중계 방송팀은 모니터 뒤 그들을 위해 예배 몇 시간 전부터 차비를 차렸다. 자칭 ‘영상제작팀’으로 통한다는 ‘영상제작팀’은 “일로써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면을 담아야 할 지 고민하며 찍는다”고 말했다.

예배 집회 현장에는 주로 10명 안팎의 스태프들이 움직인다. 전체를 조율하는 PD와 함께 AD, 카메라, 음향, 기술, 자막 등. 준비할 것들에 마음이 급해도 시작 30분 전에는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머리를 숙인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일정은 기도로 끝난다. 현장에서 그들은 일하는 자라기보다 예배자란 타이틀이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초청자

8월 13일부터 16일, 무더위가 정점을 찍었던 날 전주대학교에서는 <2014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이 막을 올렸다.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몰린 뜨거운 현장이었다. 다년간 청년들의 심령을 일으켜 온 쟁쟁한 주강사, 특별 강사들이 순서를 이끌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청년들은 그 젊음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CGNTV는 명 강사진의 강의 전편과 집회의 주요 시간들을 고스란히 지구촌 곳곳에 방송했다. 그들은 방송 뿐 아니라 현장 내 청년들의 예배도 돕기 위해 스크린에 자막을 내보내고, 현장의 열기를 카메라에 담아 스크린에 띄우며 현장감을 더했다. 스태프들은 “말씀을 읽고 현장을 담다보면 더불어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그들은 지난 9월 17~18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CGNTV인도네시아 지사의 출발을 기념한 행사 <러브 인도네시아> 현장에도 함께 했다. 그 장면은 CGNTV를 통해 선교지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방송됐다.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세상. 그 중심에 CGNTV가 있다. 또 그 속에선 오늘도 누군가 기도를 심으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함께 그를 추억하도록

지난 8월 2일 오전 10시,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은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예배 사회를 맡고, 지난 해 하 목사 추모시를 썼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가 설교를 했다.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녹음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인을 기리는 시간으로 흘러갔다. 하 목사를 그리워하는 많은 추모객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예배 중 무대 앞 작은 스크린에서는 생전 수많은 강단에 섰던 그의 모습이 상영됐다. 추모객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중엔 하 목사의 가족과, 미네노 다쓰히로 요도바시교회 목사, 주선에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 등 눈에 익은 인사들도 있었다. 해외에서 온 추모객들이 통역기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고인이 떠난 지 삼년이 지났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비단 추모객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CGNTV를 통해 1주기 때부터 하 목사를 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자신의 처소에서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세상.
그 중심에
CGNTV가 있다.

일본을 향한 CGNTV의 가능성

리키마루 츠구오(力丸嗣夫)
일본 기타큐슈시온교회 담임목사
CGNTV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일행이 지난 8월 27일 CGNTV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총책임자와 각 부서 담당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역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고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에게 주셨던 비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사역이 비단 한 대형교회의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라는 것을 느꼈고, '선교를 향한 다음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CGNTV가 자유로운 포교 활동이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서도 사역을 펼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며 생각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쓴 책 <걸고 또 걷는 복음선교(歩いて歩いて福音宣教)>가 일본CGNTV <책과의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젊은 시절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전도하던 내용의 기록입니다. 산간벽지를 찾아가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심어 주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오지 전도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성경책을 나눠 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주어도 그들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어야 하는데 그곳은 오기는 것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 일본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현장.
2. 리키마루 츠구오 목사.
3. CGNTV 본사를 방문한 <러브소나타> 실행위원들.
4. 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장, 일본 CGNTV 직원들.

전도자였던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을 내려가면서 홀로 고독하게 해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송은 많았지만, 전파가 그런 곳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기타큐슈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줄곧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CGNTV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CGNTV를 통해, 전도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전도 행위가 밝혀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지역에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CGNTV 사역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다시, 건강할 때 담임목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떠나올 때 미련이 남지 않도록 CGNTV의 '복음 세일즈맨'으로서 복음 방송 수신 시스템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서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많은 CGNTV 출연 목사님들, 협력 교회, 기타 자발적인 봉사자들이 CGNTV를 잘 후원한다면 이 사역은 더욱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공통의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학습한 봉사자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 CGNTV를 홍보하고, CGNTV 안테나 설치 주문을 받아, 지역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전파를 통해 성장하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기쁨의 현장을 CGNTV가 취재까지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꿈도 꾸 봅니다.

성령께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주의 종들을 통해 널리 퍼져, 지금은 하 목사님이 생각도 못 했을 만큼 크게 확대돼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경과 교파를 초월한 위성전파라는 무기가 사탄의 성벽을 쳐부수는 데 더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도 더욱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CGNTV 해외지사 소식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에는 최근 설립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3개 해외지사(미주, 일본, 인도네시아), 3개 제작센터(중문, 태국, 아랍)가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지사·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지사·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미주 CGNTV 개국 9주년

한인 이민교회를 위한 특별 대담



미주CGNTV는 개국 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9, 30일 총 2부에 걸쳐 '한인 이민교회 현안'을 주제로 특집 대담을 선보였다. 현재 한인 이민교회들은 한인 이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한국어 예배(KM-Korean Ministry)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에 익숙한 이민 2, 3세를 보살피기 위한 대책과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마찰에 관한 대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미주 지사는 이번 대담을 통해 한국어 예배(KM)와 영어 예배(EM-English Ministry)의 동역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가 진행을 맡고 박성근(LA한인침례교회),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가 대담자로 함께 했다.

일본 CGNTV 개국 8주년

비상하는 일본 선교사역을 위해



일본CGNTV는 개국 8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6~17일 양일간 개국 기념 감사 세미나 및 집회 등을 진행한다. '비상(飛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본 관서지역의 목회자, 성도들 700여 명이 초청될 예정. 16일 주요 출연자 60여 명을 초청해 만찬회를 갖고, 17일 목회자 대상 세미나 및 저녁 집회를 진행한다.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 김하중 장로(온누리교회, 전 주중대사)가 강사로 나서고, 송솔나무, 야스다 미호코(CCM가수) 등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일본CGNTV는 개국 8주년 기념 특집 다큐 <키리스탄>도 선보인다. 일본 오이타현 남동부에 위치한 우스키시에 숨겨져 있던 일본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이밖에 일본 지사는 여름 내 직원 아웃리치를 통해 다신교가 만연한 일본 땅 곳곳을 밟았고, 가을 개편을 맞아 10월 8일 일본 내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심는 프로젝트 2탄 <살롬! 이스라엘>을 방영한다.

중문 CGNTV 개국 6주년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

중문CGNTV는 지난 7월 15일 개국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대만 교회 목회자 및 성도, 한국인 선교사들 70여 명을 초청해 타이베이 진리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현지 교회인 대만 영광장로교회 워십팀의 공연으로 시작됐고, CGNTV 사역에 관한 장전화 목사(짱즈췌싱따오회)의 간증도 마련됐다. 장 목사는 "적은 인원이지만 중문CGNTV가 화교권에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중문CGNTV 사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중문CGNTV는 대만 남부 까오슝의 성광신학교와 '신학강의 영상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광신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술회 및 교과과정 등은 이후 중문 CGNTV를 통해 화교권에 방송될 계획이다.

아랍 CGN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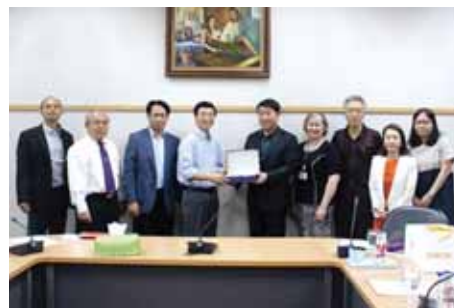
아랍 내 미디어 선교 움직임

아랍CGNTV는 현지 선교사들을 위한 본사의 협력에 대해 아랍권 미디어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전해왔다. 아랍어 문법책과 찬양집을 발간한 이OO 씨와 지난 9월 사진전을 연 이OO 선교사 등이 본사에서 기자간담회, 뉴스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역을 알려주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더불어 아랍CGNTV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에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며 아랍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적 분쟁을 위한 많은 이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태국 CGNTV

태국 교계와 미디어 사역 협력

CGNTV는 지난 7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최대 교단인 C.C.T 주요 리더십들을 만나 태국 내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과 비전을 나눴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 미디어 사역에 미온적이었던 태국 교계는 향후 태국CGNTV와 협력하며 기독교 미디어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태국CGNTV와 태국 교계는 '아세안 통합'을 추진중인 2015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던 아세안 나라들을 위해 더욱 힘을 합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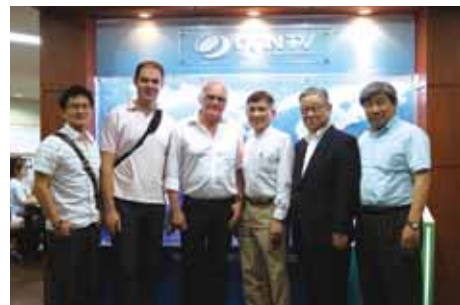


CGNTV 국내소식



CGNTV 제1기 방송선교사 파견

CGNTV가 제1기 방송선교사를 파견했다. CGNTV는 지난 7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CGNTV 직원 및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GNTV 제1기 방송선교사 파견예배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CGNTV 운영준국장, 신정길 사원(인도네시아) 이철원 PD, 박미진 사원(일본) 총 4명. 대부분 지난 해 1기 선교 헌신자로 선발돼 1년간 본격적인 선교 훈련을 받아온 이들이다. 지난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CGNTV 각 지사로 파견됐다.



해외 선교단체 CGNTV 탐방

지난 여름, 많은 해외 방문객들이 CGNTV를 다녀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7일 타지키스탄 의료선교단체 WAM에서 10명, 29일 일본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단과 성도 14명이 다녀갔다. 이어 9월 3일 미국 남 침례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팀장 스티브 에반스, 12일 프랑스 침례교단인 미션 디모데 총회장 다니엘 이싸르트, 부총회장 제레미 르와레가 직장사역연구소 방선기 목사와 함께 CGNTV를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을 통해 CGNTV의 사역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선교를 위해 더욱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4 신입사원 교육

CGNTV는 지난 9월 1일 2014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진행되는 본 교육은 CGNTV 신입사원들이 방송선교사로서 비전을 공유하고 부서별 활동을 숙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경영기획국 1명, 외국어제작국 1명, 인터넷방송국 1명, 기술국 2명, 편성국 5명 등 총 10명. 총괄본부장 김경훈 목사는 이날 신입사원들을 격려하며 CGNTV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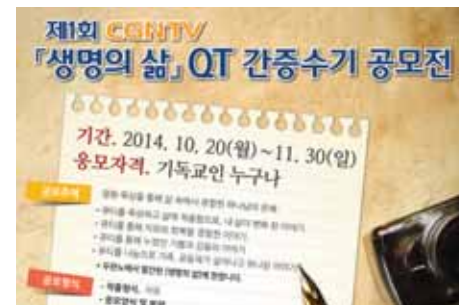
<힐링유>, <나침반> 공개방송

CGNTV <힐링유>와 <나침반>이 지난 여름, 야의 공개 무대를 선보였다. 토크콘서트 <힐링유>는 8월 8일 종로 아트라운지에서 찬양사역자 이대귀, 이길승, 김승희, 페이먼트 밴드의 무대를 선보이며 한 여름 밤의 정취를 더했다. 명사들의 맞춤형 강인 <나침반>은 파주에 있는 전진무대를 찾아가 핸드스튜디오 안준희 대표와 스타트레이너 정주호 대표의 특강을 진행하며 육군 장병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각 방송분은 CGN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CGN 청춘선교단 수료식

CGNTV는 지난 9월 22일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CGN청춘선교단' 7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청춘선교단'은 CGNTV 시니어 선교프로그램 <은빛날개>에 출연했던 시니어 출연진들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실제 시니어선교 교육과정 및 훈련을 받아왔다. 수료식은 CGNTV 관계자들 및 각 멤버들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빛날개>는 10월 둘째 주 운영되며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 진행됐던 강의들이 순차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제1회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CGNTV 큐티 프로그램 <생명의 삶>이 'QT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기로 공모한다. 대상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상자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커피머신, 생명의 삶 6개월 정기 구독권 등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CGNTV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경험한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필 형식으로 작성해 CGNTV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CGNTV 편성 프로그램

CGNTV Program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05:0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p> <p>06: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p> <p>06:30 생명의 삶</p> <p>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p> <p>08: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p> <p>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1:20 새벽나라</p> <p>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서정오 목사(동승교회)</p> <p>08: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p> <p>09:00 [말씀]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p> <p>09:4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10:20 [말씀]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p> <p>08: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p> <p>09:00 [말씀]리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p> <p>09: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0:20 [말씀]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30 그때 그 찬양</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p> <p>08:10 홈 에듀케이션 세미나</p> <p>09:00 [말씀]유진소 목사(ANC)</p> <p>09: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0: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0:4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김창근 목사(무학교회)</p> <p>08: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특강</p> <p>09:0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09:40 충성! 은혜로軍</p> <p>10:20 [말씀]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p> <p>08:10 한국리더십학교</p> <p>09:00 [말씀]이기훈 목사 (시드니온누리교회)</p> <p>09: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3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p> <p>05:40 CGN 월드리포트</p> <p>06:00 생명의 삶</p> <p>07:30 [말씀]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p> <p>08:1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09:00 CGN 비전특강</p> <p>10: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0:4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1:20 휴먼다큐 C</p>
<p>13:10 미니콘서트 쉽</p> <p>13:20 어린이예배</p> <p>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p> <p>18:2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6:00 영어예배</p> <p>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p>	<p>12:3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p> <p>13:30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p> <p>14:1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14:50 [말씀]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00 [말씀]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p> <p>16:40 매트 찬들러의 말씀강해</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2:30 [말씀]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p> <p>13:30 [말씀]정근두 목사(울산교회)</p> <p>14:1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14:50 [말씀]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00 [말씀]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p> <p>16:40 톨리안 차비진의 예배소서강해</p> <p>17:10 예수님이 좋아요</p> <p>17:40 새벽나라</p> <p>17:50 휴먼다큐 C</p>	<p>12:30 [말씀]김지철 목사(소망교회)</p> <p>13:1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p> <p>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14:50 [말씀]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00 [말씀]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p> <p>16:40 힐송처치 메시지</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그때 그 찬양</p>	<p>12:30 [말씀]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p> <p>13:30 [말씀]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p> <p>14:1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4:50 [말씀]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00 [말씀]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p> <p>16:40 컨퍼런스 : 임재</p> <p>17:10 예수님이 좋아요</p> <p>17:40 새벽나라</p> <p>17: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2:3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p> <p>13:30 [말씀]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p> <p>14:10 충성! 은혜로軍</p> <p>14:50 [말씀]마크최 목사(뉴욕IN2)</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00 [말씀]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p> <p>16:40 칩 잉그램의 로마서 12장</p> <p>17:1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40 새벽나라</p> <p>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2: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12:3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p> <p>13:30 [말씀]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p> <p>14:10 [말씀]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p> <p>14:50 [말씀]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15: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6:3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p> <p>17:30 [말씀]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p>
<p>18:2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p> <p>20:3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1: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p> <p>22:1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p> <p>23: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p> <p>19:30 충성! 은혜로軍</p> <p>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p> <p>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p> <p>21:40 CGN 비전특강</p> <p>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3:5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p> <p>19: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0:10 햇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로마서 강해></p> <p>21: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영어자막)</p> <p>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p> <p>22:4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3:50 크레이그 그로셴의 영원한 유업</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p> <p>19: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20:10 홈 에듀케이션 세미나</p> <p>21:00 [말씀]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p> <p>21:40 CGN 비전특강</p> <p>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p> <p>19: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특강</p> <p>21:00 [말씀]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p> <p>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p> <p>22:40 그때 그 찬양</p> <p>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p> <p>00:20 생명의 삶</p>	<p>18:50 [말씀]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p> <p>19:3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20:10 한국리더십학교</p> <p>21:00 [말씀]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p> <p>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p> <p>22:40 휴먼다큐 C</p> <p>23: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p> <p>00:20 생명의 삶</p>	<p>18:3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p> <p>20:10 미니콘서트 쉽</p> <p>20: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p> <p>21:00 [말씀]유진소 목사(ANC)</p> <p>21: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p> <p>22:20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p> <p>23:0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p> <p>23: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20 생명의 삶</p>

선물이 되는 마음

“CGNTV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CGNTV 후원자인 올해 83세 이재운 권사의 기도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저 순전하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CGNTV는 그녀와 같은 후원자들의 진심의 온도를 실어 오늘도 지구촌 곳곳으로 방송되고 있다. ‘현재(Present)’ 라는 평범한 ‘선물(Present)’ 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 영혼을 돕는 힘은 진심에 귀 기울이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에 있었다.

“땅 끝에서도 예배의 축복이...”

이재운 권사

83세의 이재운 권사는 CGNTV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동안 새벽 예배, 철야예배 등 매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7년 전 딸의 가게에 있던 CGNTV 안테나를 집에 설치하게 되면서 원하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됐다.

더 없이 기쁘고 감사했던 그녀는 그즈음 CGNTV를 후원했다. “처음엔 요금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몰라 그냥 교회에 냈어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후원금에 대해 요금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에게 CGNTV 후원은 받은 사랑에 대한 요금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자동이체로 하게 돼 아주 편하다면서.

새벽예배를 마치면 그녀는 동네에 있는 길음초등학교로 향한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집을 나설 때면 때론 몸이 고될 때도 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녀는 늘 마음이 기쁘다고 한다.

“낮익은 녀석들이 매일 힘차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제 마음까지 젊어지는 것 같죠.” 그녀는 때론 그 아이들을 위해 과자와 사탕 봉지를 준비해가기도 하고, 때론 교회에 가보라고 권면하기도 한다. “차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한 그녀의 축복일까. 그녀는 자신에게도 꼭 필요했던, 교통정리를 하고 받은 첫 수당을 아낌없이 CGNTV 후원금으로 드렸다.



“외딴 곳 누군가에게 까지...”

정주호(스포츠 트레이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새벽예배도 가고 선교지에도 갑니다. 우리 몸은 귀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는 CGNTV의 여러 사역에도 자주 참여했다. 당시 그는 방송 후원의 효과가 잘 체감되지 않기도 했는데, 몸소 사역 현장을 밟으면서 CGN 후원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교인이 다섯 명도 안 되는 외딴 섬마을에 안테나를 달아주러 갔었죠. CGN 후원이 외딴 섬, 그다섯 분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오지에 작은 교회에서도 같은 마음을 느꼈다. “안테나 하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일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CGN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트레이너 정주호 씨는 스타 트레이너이자 건강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을 훈련시켜주는 것은 물론 책, 온라인, 앱 등을 통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CGNTV에서도 <정주호의 몸뚱이>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7년 간 재능 기부를 통해 정신지체아, 미혼모, 탈북자, 알콜 중독자 등의 건강 훈련을 돕기도 했다. 의료봉사가 있듯 그는 예방차원의 건강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김덕년, 유영신 부부

일상의 귀한 영적 충전소였다. 처음에는 방송을 통해 주로 자료를 찾았지만, 점점 집회, 말씀,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까지 여러 분야를 시청했다. 지칠 때, 낙심될 때,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싶을 때 그들은 CGNTV와 함께 했고,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것이 선교사님이라서 더 값지게 다가왔다.

“일 년 후 저희 기도의 씨앗들이 모아진 것을 보면서 감사와 뿌듯함이 넘쳤습니다. 특히 저희가 모아 둔 후원금이 설치를 희망하는 선교지의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태중에 아이도, 언젠가 주실 아이를 생각하며 후원을 시작한 해에 얻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는 태명은 ‘요한’이다. 뜻이 ‘하나님의 중요한(要) 편지(翰)’라고. 방송 선교사인 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중요한 편지가 아닐까 싶다.

2년 차 신혼부부인 김덕년, 유영신 씨는 매해 결혼기념일마다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결혼 1주년을 맞은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길 꿈꾸며 시작한 것.

두 사람은 매일 일정한 금액을 떼어 모았고, 지난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만, 아프리카에 5개의 위성안테나를 후원했다. 지금은 태중에 아이 이름으로 또 한 사람분의 하늘 창고를 채우고 있다.

두 사람은 청년 시절 CGNTV를 만났다. 그들에게 CGNTV는

후원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돼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정기후원약정서 작성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 가능

2) 일시후원

- (1)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클릭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한 통화에 5천원)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외환은행 630-004878-302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NH농협 301-0072-3639-01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정기/일시 후원문의 : 02)796-2243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170여 개국 선교사님들께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시는 캠페인입니다.

- 1) 인터넷 신청 : <http://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클릭
- 2)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 T.82-2-796-1118 / F.82-2-796-1398

3. 기도후원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1)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2)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비전홀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의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성목 김성진 김영길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은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은영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형식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장수 이창환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유강 최훈학 추말자 하성기 한상준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광석 황상운

오늘도 생방송되는 하나님의 꿈!

당신의 손끝에서 땅끝으로 전해집니다



정기후원 참여방법 안내

- 1. 인터넷 후원 약정.
- give.cgntv.net에서 후원하기 클릭
- 2. 모바일 후원 약정.
- m.cgntv.net에서 후원하기 터치
-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에서 정기후원 터치

증액후원 방법 안내

- 1. 인터넷 give.cgntv.net에서 회원가입 후 후원금 증액 신청

후원 문의

- 전화 : 02-796-2243
- 인터넷 : www.cgntv.net

후원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예금주 :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성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땅끝이 행복해집니다.